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34호 【루계 제23286호】 주체99(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자

지금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지방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얼마전 창성군을 찾으시여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생산을 급격히 늘이고 제품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인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시, 군들에서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지방공업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창성군현지지도는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인민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지금 창성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머나먼 북방을 찾으시여 새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지방경제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들이 자체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강국건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전반부문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상승의 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서 중공업과 경공업부문의 중요공장들의 CNC화가 실현되고있으며 우리의 원료, 기술에 의거하여 중요공업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중앙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지방공업을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나라의 모든 자원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대고조의 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일수 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마련된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생산잠재력은 대단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는 직물공장, 식료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 지방예산수입을 높이는데서 그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생산을 장성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공업건설사상과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다.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지방공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발전시켜 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지방공업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오늘 우리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지방공업을 현대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울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짧은 기간에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그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다.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소비품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결심에는 값눅고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숭고한 의도가 깃들어있다.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소비품은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품종별수요량이 각이한것으로 하여 다종다양한 원료, 자재가 요구된다.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야 여러 지방에 있는 원료원천과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끊임없이 장성하는 인민소비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우리 인민의 리상을 실현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 세기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이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로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찾으시여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리신데는 온 나라에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깊은 뜻이 어려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대로 지방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지방공업혁명을 일으키자면 시, 군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시, 군은 우리 나라 말단행정단위일뿐아니라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다. 시, 군의 역할을 높여야 지방의 원료원천과 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시, 군의 일군들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지방산업공장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지방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도록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며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일해나가도록 옳게 지도하며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방공업의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발전시키는것이 원칙이다. 우리 당이 지방공업을 창설한 주요한 목적은 지방원료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려는데 있다. 모든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시, 군들에서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재배원료기지를 많이 조성하고 지방공업원료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또한 높은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자기 지방에 있는 원료와 자재예비를 모조리 찾아내며 전군중적운동으로 풍부한 원료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수매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지방공업에 필요한 농산물과 축산물, 농장원들의 부업생산물과 부산물을 널리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는것이 중요하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기술적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 그 생산량을 늘이며 로동을 더욱 헐하게 할수 있다.

시, 군들에서는 과학기술이자 생산이라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자체의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내밀며 자기 지방의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불비한 생산공정을 빨리 완비하고 선진기술, 첨단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 과학화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에 복무하는 수리기지와 설비생산기지를 더 잘 꾸려야 한다.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는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라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시, 군들에서는 식료품과 세소일용품을 만들어도 주로 자기 지방의 원료를 가공하여 만들어야 하며 그것으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량을 부단히 늘여 시, 군내살림살이를 향상시켜야 한다.

온 나라에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면 내각과 중앙기관들이 지방공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지방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한다. 시, 군들에서 지방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지방공업을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꾸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기관들,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 기계, 화학공업부문들에서는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 지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보다 큰 위훈과 로력적앙양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전체 지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펴주신 지방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선군천리마에 박차를 가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뜻깊은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자.

총진군의 기세드높이 모든 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활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뜻깊은 올해의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해설침투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그들을 혁명과업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황해북도 여러 부문 사업을 료해하시고 도안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에서 높이 발휘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시키고있다.

일군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해주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나간 도당위원회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기업소일군들과 강철전사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발휘하여 철강재생산에서 다시한번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였다. 이와 함께 철강재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방도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당정책관철에 언제나 충실해온 황철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온 도가 달라붙어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황철의 로동계급을 적극 지원하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최첨단돌파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부터 앞장에 서서 설비개조를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례성강청년1, 2호발전소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례성강청년3, 4, 5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발전소건설장에 나간 일군들은 공사기일을 보장하는데서 다음해 장마철전까지 발전기실공사를 끝내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것을 제때에 포착하고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리원시가 도시미화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관철을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리원시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도시에 넓은 부지면적의 훌륭한 화초온실을 꾸릴것을 설계하고 짧은 기간에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끝내기 위한 드센 공격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또한 이미 시작한 시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 마을에 조선기와장식울타리들을 형성해놓기 위한 사업과 걸음길포장작업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하였다. 시에서는 도시전망설계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농촌당조직들을 발동시켜 당면한 낟알털기전투에 모든 힘을 총집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정방산종합식료공장과 돼지공장, 닭공장을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필요한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맞이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도안의 모든 부문들에서는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열렬한 향토애를 지니고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입니다.》

개성시에서

개성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도로보수와 구조물공사 그리고 강하천제방보수공사, 도시와 마을꾸리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선전선동수단들을 리용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관부문 일군들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시안의 모든 단위들에서 그날 맡겨진 과제는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하게 하고있다.

시국토환경보호관리부 일군들은 기관, 기업소와 공장, 협동농장들에 나가 국토관리사업을 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키면서 그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로보수관리대에 나간 일군들은 도로보수를 위한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대중을 이끌어 짧은 기간에 많은 면적의 도로옹벽보수공사와 사면보수공사를 해제꼈으며 얼마전에는 수백㎡의 도로포장공사를 질적으로 끝내게 하였다.

시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련일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개성시안의 고치생산사업소, 송도피복공장, 도시건설사업소, 관개관리소, 민속려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종업원들이 성실한 땀방울을 바쳐가며 도로보수과제수행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시안의 여러 단위 근로자들은 강하천정리사업에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하천제방대보수공사장에 달려나온 개풍철제일용품공장과 개풍기와공장, 개성신발공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의 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고 수백m구간의 제방쌓기를 진행하고 900㎥의 장석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고 도시와 마을꾸리기에서도 성과를 거두고있다. 만월동, 남안동, 동현동, 관훈동, 승전동, 월정리들에서도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고있다.

시에서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주변산들과 해선리, 룡흥동, 개풍지구를 비롯한 17개 지역에 나무심을 구뎅이를 파놓기 위한 사업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첫단계 전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다음단계 과제수행에 력량을 집중하여 날에날마다 성과를 이룩해가고있다.

특파기자

혜산시에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혜산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가로수심기에 한결같이 떨쳐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가로수조성계획을 높이 세우고 이악하게 실천해나갔다. 국토환경보호관리부문 일군들은 나무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적기에 나무심기를 조직하고 북방의 특성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가로수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안의 모든 기관들과 단위들에 분담을 준 다음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고 단위들에 나가 기술지도를 따라세웠다.

혜산시의 거리와 마을이 가로수심기로 들끓었다. 곳곳에서 구뎅이파기를 끝내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위연, 성후지구에서는 기본도로량옆에 이채로운 봇나무들을 심었다. 온 나라 답사자들이 찾아오는 혜산시에 백두의 봇나무들이 줄지어 설레이게 할 애국의 뜨거운 일념을 안고 근로자들은 수많은 봇나무들을 심었다.

혜산시—삼수발전소도로량옆에는 보기 좋은 이깔나무들이 뿌리내려 새 모습을 펼치였다.

혜산청년광산지구의 도로주변에 심은 수많은 가로수들에도 근로자들의 지혜와 애국의 열정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도혁명전적지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혜산시안의 대학생들은 한대의 나무를 심어도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사업에 기여할수 있게 심어야 한다는 참된 애국심을 안고 가로수심기를 실속있게 하였다.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대학생들은 조국의 재부를 늘여갈 한마음안고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대고조전투장의 새 소식

대형채굴장이 계속 늘어난다

룡양광산에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룡양광산에서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광산에서는 올해에 금산갱, 청년갱을 대형채굴장으로 전변시켜 광석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5배로 높이였다. 최근에는 6월5일갱에서 2호, 3호채굴장의 대형화가 힘있게 진척되고있다.

채굴의 대형화가 실현되고 그에 맞는 대담한 채굴공법이 도입됨으로써 광산에서는 광석을 다량채굴, 다량락광, 다량처리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생산성과는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락관을 가지고 당의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이곳 일군들과 광부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광산을 영원한 청춘광산으로 빛내여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광산의 일군들이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장춘근동무를 비롯한 광산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채굴의 대형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광부들을 적극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금산갱의 채굴장을 대형화하였다. 갱안에 여러 대형채굴장들을 이어주는 륜환선도로가 형성되였으며 광석하차장도 꾸려져 금산갱은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전변되였다. 제힘으로 훌륭한 채굴조건을 마련한 금산갱의 광부들은 전면붕괴식채굴방법으로 지난 시기보다 3배나 높은 광물생산성과를 거두며 기세좋게 전진해나가고있다.

광산에서는 금산갱의 채굴장을 대형화한 경험에 기초하여 청년갱의 채굴장을 대형화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였다. 청년갱의 광부들은 불타는 창조적열정안고 교대가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리면서 굴진실적을 높여 짧은 기간에 수백m의 갱도를 확장하였다. 그리하여 얼마전에 채굴의 대형화가 실현된 청년갱에서 광석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첫날부터 광석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오고있다.

6월5일갱에서도 대형채굴장을 더 전개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기쁨을 드린 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2호, 3호채굴장을 대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갱의 일군들은 현행생산을 밀고나가는 속에서도 로력과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광부들의 열의를 북돋아주면서 빠른 속도로 갱확장사업을 밀고나가고있다.

채굴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광석생산이 부쩍 늘어나는데 맞게 7.1갱의 일군들과 광부들이 광석운반계통을 정비보강하여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도록 하고있다.

강성대국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멀리앞을 내다보며 생산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9월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온 나라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도록 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과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한 주체99(2010)년,

온 나라 천만군민이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며 뜻깊은 올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이즈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은 끊임없이 전해지고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이 이룩되게 될 이해의 정초부터 인민군부대들과 온 나라의 대고조전투장들에로 쉬임없이 이어지는 우리 장군님의 현지시찰, 현지지도의 그 자욱마다에서 선군의 참뜻을 새겨주며 울리는 하나의 시대어가 있다.

혁명적군인정신!

새해 정초에 -30℃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는 우리 군대의 정신력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하시며 그들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시고 주체의 쇠물폭포가 쏟아져내리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숨져가던 황철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안고 억척같이 일떠선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했다고, 이 눈부신 전변은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혁명적군인정신은 여기에서도 창조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고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시면서는 모든 군인가족들이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군인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사회주의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나갈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그이께서 초강도강행군으로 찾고찾으신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이르는 곳마다에도 얼마나 뜨겁게 어리여있는것인가.

위대한 선군령장의 강행군로정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눈부신 기적과 혁신으로 이해의 마지막달을 마중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적군인정신을 선군정치실현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승리와 변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걸출한 령도의 현명성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습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며 부닥친 난관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 풍모에 대한 절대적인 매혹과 장군님을 한목숨바쳐 옹위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은 없다는 투철한 인생관이 담겨져있는 혁명적군인정신,

그것은 벌써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50년전 8월의 그날에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의 수령결사옹위의 구호와 더불어 인민군군인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군인회관정문 채양우에 있는 구호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보시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반영한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힘있게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

수령결사옹위의 구호, 신념의 구호와 더불어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에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진수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하기에 뜻깊은 올해의 1월 사연도 많고 력사도 깊은 이 땅크부대를 찾으시여 105땅크사단과 같은 근위부대들이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기때문에 우리 혁명이 만난시련을 이겨내고 승승장구할수 있었다고 하시며 잊을수 없는 그 나날을 감회깊이 추억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50년전 8월의 그날과 더불어 수령결사옹위를 신념으로 체질화하고 당의 요구라면 산악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불굴의 투쟁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혁명의 년대기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온 우리 군인들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선군시대의 위대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였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에 대해 생각할 때면 누구나 완공단계에 들어선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숭엄히 어려와 눈굽을 뜨겁게 적시군 한다.

거연히 솟아오른 언제며 취수구를 비롯한 구조물들, 물길굴을 비롯한 발전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위훈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시였고 그들의 고귀한 사상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해주시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데 이어 우리 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수많은 건설장들을 찾고찾으시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앞에 조성된 난국을 고난의 행군정신, 혁명적군인정신으로 타개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인민군대에서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나아가서 혁명적군인정신을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승화시키시려는 숭고한 뜻이 자리잡고있었음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더욱 변모되여가는 조국의 모습을 보며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선군혁명의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는 그이께서 주체86(1997)년 3월 17일에 발표하신 력사적인 로작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울데 대하여》**의 자자구구에도, 혁명적군인정신에서 기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이라고 밝혀주신 고전적정식화에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보루를 튼튼히 다지는 위력한 힘도,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 근본비결도 혁명적군인정신에 있다고 확신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위대한 정신이 온 사회에 맥박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기울이신 크나큰 심혈의 세계는 그 얼마였던가.

지금도 장자강의 푸른 물결은 혁명적군인정신과 더불어 온 세상을 놀래운 강계정신이 어떻게 창조되였는가를 소리높이 전하며 용용히 흐르고있다.

주체87(1998)년 1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게 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도의 한 책임일군에게 자강도에 와서 이곳 로동계급이 당의 믿음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고, 정신상태가 매우 좋다고, 큰 힘을 얻었다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강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발휘한 고귀한 투쟁정신을 강계정신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강계정신을 따라배워 온 나라가 들끓도록 해야 하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책임일군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돌이켜보면 강계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이 사회에 구현되는 과정에 창조된 정신이였다. 강계정신이 창조될수 있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해주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도 그이께서는 모든 영광을 자강도사람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이였다.

강계정신의 창조와 일반화, 이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더욱 힘있게 나래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강계정신이 일반화되는 과정에 전사회적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되였다.

강계정신은 혁명적군인정신이 구현되여 창조된 정신이였으며 여기에 원천을 두고 성강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공격전의 봉화, 최후승리를 위한 성강의 봉화가 세차게 타올랐다. 이런 나날속에 성강의 봉화에 이어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고 경제활성화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태천의 기상이 창조된것도, 선군시대에 격동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설수 있은것도 혁명적군인정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창조되고 일반화된 기간은 1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민군대의 이 고결한 혁명정신이 온 나라에 나래치게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조국에서는 그처럼 짧은 기간에 혁명적군인정신이 전인민적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에서의 일치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이룩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앞으로도 선군시대의 위대한 혁명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감으로써 오늘의 보람찬 총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 강성대국대문에 떳떳이 들어설것이다.

본사기자 김준혁

숭고한 동지애의 화폭

위대한 우리 당의 성스러운 65년력사는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승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년대기이다.

하다면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헤쳐오면서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존엄을 누리에 떨친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일심단결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것인가.

여기에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동지애는 우리 당의 정신력이며 우리 혁명의 추진력입니다. 혁명적동지애를 떠나서 우리 당을 생각할수 없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의 신상에 중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였다.

그 일군으로 말하면 이미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치료를 받았었다. 그런데 다른 병이 생긴것으로 하여 일체 면회사절이라는 선고까지 받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시금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것으로 하여 일군은 몹시 고민하고있었다.

어느날 난데없이 문소리가 나더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호실로 들어서시는것이였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는 순간 일군은 온몸이 굳어지는듯 하였다. 일군은 정신을 차리고 경애하는 장군님, 저는 장군님을 모실수 없는 몸입니다. 새로 생긴 병이 그만…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알고있다고 하시며 그냥 그에게로 다가오시였다.

순간 일군은 황급히 뒤걸음치며 경애하는 장군님, 안됩니다라고 웨치고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먹으로 훔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다시는 영영 뵈옵지 못하는줄 알았는데 이제는 소원이 풀렸습니다.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저의 병은 몹쓸 병입니다.

일군이 이렇게 거듭 말씀드렸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그에게 다가와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래 나를 동지의 아픔보다 제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인가고, 고락을 같이하고 자기를 위해서 바라는것보다 남을 위해서 바치는것이 더 많아야 하는것이 혁명동지들 호상간의 관계인데 그것이 빈말로 끝나서야 되겠는가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을 와락 끌어안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항일의 나날 열병에 쓰러진 전우를 위해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산전막을 찾으시여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모습그대로 이시였다.

혁명동지를 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렇듯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떠나 이 땅에 만발하는 혁명적동지애의 화원과 무성하게 꽃펴나는 충정과 보답의 의리에 대하여 결코 생각할수 없다.

동지를 위해 죽을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수 있다는 좌우명을 지니시고 동지를 위해 천리길도 달려가고 생명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적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에 혁명전사의 가장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보답하려는 천만군민의 끝없는 충정으로 불타는 혁명적동지애가 바로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기초이거니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알바니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티라나

알바니아공화국 대통령

바미르 또뻬각하

나는 알바니아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친선적인 귀국의 번영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99(2010)년 11월 28일 평양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 활발

송남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교양사업을 현실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특히 연혁소개실참관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참관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종업원들에게 백두산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탄광이 걸어온 자랑찬 력사를 감명깊게 해설해주어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의 실효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에도 연혁소개실에 대한 참관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때 초급당위원회책임일군은 연혁소개실을 참관하는 종업원들에게 탄광의 전변의 력사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해설하면서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더 높은 석탄증산으로 받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참관자들은 전세대들처럼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김영수

백두산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 《빛나라 열두삼천리벌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이여》가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 건립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이 없어 고생하던 이 고장 농민들의 생활형편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평남관개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으며 농장을 나라의 믿음직한 알곡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여러차례 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시면서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농장에서는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열의안고 현지지도사적비를 훌륭히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강동영 숙천군당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를 건립한것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의 표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농장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덕을 잊지 말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대로 농장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맡겨진 알곡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축산과 양어 등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단계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조선을 세계에 높이 떨치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현시기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정신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소집된 당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시대는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는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이며 주체혁명위업이 전면적으로 완성되여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당대표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소집되는 회의이다.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의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다시말하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시대적과제들이 제기될 때 그 해결을 위하여 소집되는것이 바로 당대표자회이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적으로 진행된 당대표자회들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1958년 3월에 있은 당대표자회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오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총화하고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되였다. 1966년 10월에 우리 당은 당대표자회를 열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로선을 제시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고조를 일으킬것을 호소하였다. 이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결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올해의 당대표자회도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소집된것이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나날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의 불패성이 뚜렷이 과시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이 힘있게 떨쳐진 영웅서사시적행로였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였다.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는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백배천배로 강화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바야흐로 우리 혁명은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력사적단계에 들어섰으며 우리앞에는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광명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당은 바로 우리 혁명의 이러한 력사적단계의 요구에 맞게 조선로동당을 더욱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였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는데 이번 당대표자회가 가지는 거대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당대표자회의 정신은 우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자는것이다.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에서 근본문제로 나선다. 당건설위업을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지 못할 때 당의 성격이 변색되고 그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는것이 혁명적당건설사가 새겨주는 교훈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그에 토대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당은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되고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과 로선,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해나간다는것이다.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고 우리 혁명의 백승의 미래가 있다.

이번에 진행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지도기관에 영원히 높이 모신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은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는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존엄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대를 이어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은 응당한 본분이며 혁명적도덕의리이다.

우리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여나갈것이다.

당대표자회의 정신은 다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일적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는것이다.

전당과 온 사회에 대한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령도자의 사상의지대로만 움직일 때 혁명은 그 어떤 고난도 뚫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이번에 진행된 당대표자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실데 대한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며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따라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력사적투쟁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백전백승이며 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김일성**조선의 무궁번영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수십성상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였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가 위대하여 조선로동당이 강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불패이며 주체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희망찬 미래에 대한 크나큰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천만군민의 신념의 구호, 일심단결의 기치로 되고있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갈 고결한 충정으로 가슴끓이고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당대표자회의 정신은 또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자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향도해나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인민들의 천만가지 행복이 꽃펴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당의 령도밑에 지금 이 땅 그 어디에서나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희한한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다.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약동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으며 도처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고있다.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당의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 근본비결이 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당과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표들로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되였다.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는 로숙하고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의 참모습이 다시금 뚜렷이 과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이 새로 선거됨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더욱더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민족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것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반영한 당대표자회정신을 깊이 새기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홍병우

대고조의 요구에 맞게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당조직정치사업

경쟁열의가 안아온 집단적혁신

재령군당위원회 사업에서

재령군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훨씬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건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였다. 비결은 경쟁심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켜 높은 실적을 내도록 이끌어준 군당위원회의 옳은 조직정치사업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벌려야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대중적혁신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군당위원회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의 묘술을 그들의 승벽심을 높여주는데서 찾고 협동농장, 작업반, 개인호상간의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모든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이번에 조직하는 경쟁이 단순히 경제과업수행을 위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고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새겨주어 누구나 사회주의경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한것이다.

경쟁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자면 해당 단위의 일군들이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주체적인 당사업방법이다. 군당위원회는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는데서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잘한 점은 보여주기단위를 특색있게 선정한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보여주기단위를 지난 시기처럼 앞선 단위가 아니라 강냉이가을걷이면적이 제일 많은 단위, 그로 하여 당면한 영농공정이 처지고있는 단위인 벽산협동농장으로 정하였다. 이것은 조건이 제일 불리한 단위의 영농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제일 앞선 단위로 만들어 모두의 경쟁열의를 고조시키자는데 있었다.

이 농장에서는 올해에 군당위원회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방조밑에 사회주의경쟁방법을 새롭게 하였다. 농장의 부림소들로 편대를 조직하여 한개 작업반씩 몰밀어 가을한강냉이를 탈곡장까지 실어나르게 하였다. 이렇게 작업조직을 짜고드니 경쟁이 작업반호상간의 경쟁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부림소관리공 호상간의 경쟁으로 번져지게 되였다. 경쟁대상이 많아지니 대중속에서 경쟁열의는 부쩍 높아지고 실적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림소관리공들은 부림소의 영양관리를 잘하면서 강냉이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에 적극 뛰여들었다. 경쟁에서 이기려는 승벽심이 높아진것으로 하여 농장에서는 강냉이가을과 실어들이기를 지난해보다 9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중속에서 경쟁열의가 높아지는데 맞게 군당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전투현장에 접근시키고 그들의 경쟁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능란하게 벌려나갔다.

포전방송기재들을 전투현장에 배치하고 혁신의 새 소식을 알려주는 방송선전을 시간별로 련속 들이대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단위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고 승벽심을 내여 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는 곳에 작업반별가을걷이와 낟알털기실적을 보여주는 경쟁도표판을 게시해놓게 하였다. 이것 역시 농장원들을 분발시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이였다. 이렇게 되자 농장원들의 일욕심은 더욱 커졌다.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는 가운데 신곶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강냉이가을걷이를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은 집단의 단합된 위력을 높이 떨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경쟁을 조직하면서 군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은 앞선 작업반이 뒤떨어진 작업반을 돕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돕는 방법으로 집단의 힘을 합쳐 모두가 결승주로에 긍지높이 들어서게 하는것이였다.

주목되는 점은 경쟁평가기준을 잘 정한것이다. 사회주의경쟁요강에 다른 작업반과 분조를 도와주는 경우 높이 평가할데 대한 항목을 정하고 영농공정별로 따라가면서 총화하고 우승한 단위와 농장원들을 평가해주는 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실천을 통하여 경쟁의 위력을 느낀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분발하였다.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고 앞선 사람이 뒤떨어진 사람을 돕기 위한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어나는 가운데 북지협동농장, 굴해협동농장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끝낸데 이어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재령군당위원회 사업은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진행할 때 대중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결사관철의 정신은 불가능을 모른다

화풍탄광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화풍탄광이 몰라보게 변모되였다. 종합지령실, 권양기장, 영양제식당, 정양소, 목욕탕, 구내도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비롯한 모든것이 한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안겨온다. 자랑은 이만이 아니였다. 탄광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에서도 올해에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여왔다. 무슨 힘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당에 충실하려면 당에서 준 과업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올해 하반년도에 들어서면서 탄광앞에는 더욱 무거운 과업이 제기되였다. 그때 일군들은 상반년계획도 수행하였는데 높아진 계획이라고 왜 못 수행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탄광에서는 지난 기간 불리한 생산조건을 유리하게 전변시키는데 품을 많이 들이였다. 그러면서도 매달 계획은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그런데 하반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아름찬 과제가 나섰다. 높아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때 당일군들의 결심은 매우 중요하다.

초급당일군은 지난해에 탄광에 찾아오시여 석탄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일군들에게 다시한번 깊이 심어주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봅시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초급당일군의 말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일군들에게 준 여운은 컸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저절로 높이 발양되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할 때 높이 발양된다.

초급당위원회는 탄부들속에 들어가 결사관철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일군들과 탄부들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중앙과 련합기업소에서 나온 일군들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결의를 적극 지지해주면서 힘을 합쳐나갔다.

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늘이자면 결정적으로 갱통중대의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갱들에서의 굴진과 채탄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였다.

초급당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갱통중대 전투장이였다. 초급당일군들은 교대로 전투장을 비우지 않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그들의 모습은 그대로 전화의 나날 고지우에서 화선선동을 하던 인민군대 정치일군들의 모습이였다. 전투원들이 힘들어할 때에는 당일군들의 가정들에서 여러가지 후방물자를 보내여왔다. 행정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의 가정에서도 떨쳐나섰다. 온 탄광이 계획수행을 위한 결사의 투쟁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갱통중대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으면서 화풍갱, 3갱에 깊은 주목을 돌려 굴진과 채탄에서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갱들에 들어간 일군들은 설비가 고장나면 남먼저 부속품도 구해오고 동발나무가 부족되면 해결대책을 혁명적으로 세워나갔다.

초급당일군들의 이런 투쟁기풍에 의하여 탄광에서는 어렵게만 여겨지던 지난 7월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할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매달 계획수행에서 다른 단위들보다 앞장에 설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탄광을 훌륭히 꾸리고 석탄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있는 화풍탄광초급당일군들의 사업경험은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닐 때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시홍

현장에 깊이 들어가

와우도봉화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와우도봉화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당, 행정배합이 잘되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을 내세워주고 잘 도와주어 그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해야 할 사업을 앞질러 포착하고 제기된 문제를 작전하고 밀고나가도록 그들의 사업을 알심있게 도와주어 알찬 열매를 맺게 하는것은 이곳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다.

한가지 사실자료를 놓고 보기로 하자.

어느날 공무수리작업반에 들려 로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초급당비서 주상철동무는 뭔가 깊이 생각되는 점이 있었다.

일욕심이 많은 지배인 류화영동무의 발기에 따라 공장에서는 자동맞단추기계를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하여 생산에 리용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제기할것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주동적으로 공장사업을 앞질러 속속들이 환히 꿰들고 그에 맞게 사람과의 사업을 능란하게 짜고들자.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들끓는 전투현장에 들어가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공무수리작업반에 들어간 초급당일군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같이하고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을 안겨주면서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초급당일군은 공무수리작업반 당세포 당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밤을 밝히기도 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제기될 때면 해당 부문 일군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신심을 잃지 않고 완강하게 내밀도록 용기도 북돋아주었다.

여기서 큰 고무를 받은 지배인 류화영, 기사장 최달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이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리하여 공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성능이 좋은 자동맞단추기계를 여러대 만들어 생산에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떠밀어주고있기에 공장은 전투력이 강하고 일잘하는 공장으로 자랑을 떨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최일호

왜 탄복하군 하는가

정주시 오산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놓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대행할것이 아니라 당일군의 본분에 맞게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당적지도를 강화해야 하며 직접 틀어쥐고 집행할것은 집행하고 뒤에서 당적으로 밀어줄것은 밀어주고 도와줄것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농장일이 잘되는 비결을 물으면 리당비서는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이 조직적수완과 실력이 높기때문이라고 대답하고 관리위원장은 리당일군들이 행정경제사업을 뒤에서 당적방법으로 잘 떠밀어준 결과라고 말한다. 이 농장의 당, 행정일군들 호상간의 관계는 이처럼 뜨겁다.

올해 봄논갈이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도록 당적으로 잘 밀어준 과정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당면한 영농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행한 협의회에 참가한 농장일군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질게 비껴있었다. 그도그럴것이 논갈이가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처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농장일군들의 심리상태를 포착한 리당비서 한영춘동무는 자기 할바를 곰곰히 더듬어나갔다.

— 일이 처진 다음에 수습하려고 뛰지 말고 문제해결의 요점을 앞질러 포착하고 농장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해주자.

리당비서의 이런 결심은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기계화작업반에 들어간 리당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의 협의회를 열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벌렸다. 제8작업반을 담당한 리당비서는 뜨락또르운전수들속에 들어가 살다싶이 하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폭발시켰다. 단 3일동안에 100여정보에 달하는 논갈이를 해제끼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작업반들이 서로 승벽내기로 논갈이전투에서 기세를 올렸다. 그리하여 올해 농장에서는 짧은 기간에 논갈이를 전부 끝내는 혁신을 일으켰다.

이것은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곳 농장일군들이 리당일군들에 대하여 늘 탄복하는 까닭의 다른 하나는 기술인재들과의 사업을 잘 짜고들어 주체농법관철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기때문이다.

언제인가 리당비서는 관리위원장과 함께 농장포전을 돌아보면서 물문제때문에 그가 얼마나 애쓰고있는가를 알게 되였다.

리당비서가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농장실정에 맞는 양수기가 꼭 있어야만 물문제를 풀수 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며칠동안을 꼬박 새워가며 양수기에 대한 기술적파악을 한 그는 농장에서 《보배》라고 불리우는 수리분조장 리순규동무와 기계화작업반장 리택근동무와 마주앉았다. 토론을 거듭하는 과정에 이들은 자체의 힘으로도 농장실정에 맞는 양수기를 만들수 있는 새로운 안을 찾게 되였다. 련이어 수리분조의 기능공들속에 들어간 리당일군은 그들에게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의 참뜻을 가슴깊이 새겨주면서 대담하게 달라붙어 양수기를 만들어보자고 신심을 안겨주었다.

수리분조의 기능공들이 떨쳐나섰다. 리당일군은 이들과 함께 피타는 탐구와 불같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양수기제작에 달라붙었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렇듯 뒤에서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활기있게 떠밀어주는 저런 당일군과 함께라면 무슨 일인들 주저하겠는가고 하면서 더욱더 분발하여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렇다.

당대표자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당일군들이 이처럼 행정경제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어려운 일에 한몸을 남먼저 내대며 적극 떠밀어줄 때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영예등록장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 김책시 방학리당위원회에서 — 본사기자 전경서 찍음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어

신천군 우룡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우리 당의 위대성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지도를 하면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이는 력사적인 사변이라는데 대하여 깊이 해설해주었다.

제9작업반에 나간 리당비서는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백승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위대성을 조국땅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과 결부하여 해설해주어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우리 당을 쌀로써 받들어갈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올해농사를 잘 결속하기 위한 당면한 농사일에서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리정수

강원도내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년간계획 완수

강원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를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 년간계획을 8개월만에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사출기와 압출기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질좋은 갖가지 수지제품과 부엌세간을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 이들은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문천발브공장 로동계급도 앞선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고 기대간, 교대간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규격의 발브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일념안고 올해 정초부터 드센 공격전을 벌려온 원산화학공장에서는 밀봉재를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을 다그침으로써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마무리하였다.

원산청년발전소, 문천강철공장, 원산기계공장, 판교림산사업소 로동계급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높이 세운 전력과 강철, 통나무 등의 생산을 늘임으로써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 들어섰다.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온 평강군농기계작업소, 원산유리병공장, 원산영예군인수지가공공장, 원산전선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이 년간계획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도내 공장, 기업소들의 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총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더 많은 신발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신의주신발공장에서— 신충혁 찍음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새겨가는 위훈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경제건설에서도 앞장에 서서 로력적위훈을 떨치고 빛나는 모범을 보이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혁신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 근로자들을 영웅적투쟁과 생산적앙양에로 고무추동하고있습니다.》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오늘 우리의 군인건설자들은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그들속에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에게는 지난 기간 건설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하지만 이들의 심장속에는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불러준 당의 믿음에 높은 건설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이 깊이 자리잡고있다. 하기에 이들은 부대가 맡은 10여동의 다층살림집건설을 본때있게 추진하여 내무군병사들의 애국적열의와 불굴의 투쟁기풍을 잘 보여주고있다.

불가능을 모르는 일본새

공사초기에 수도의 거창한 살림집설계도를 받아안은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가슴가슴은 수호자의 자각과 함께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긍지로 차고넘치였다.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를 현실로 꽃피울 영예로운 임무가 자신들에게 맡겨졌다는 소식을 흥분속에 받아안았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착공의 첫삽을 박던 나날에 이들앞에 제기된 애로는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공사지휘를 맡은 부대장 김남일동무는 그처럼 어려운속에서도 살림집건설을 통이 크게 추진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부대가 맡은 여러동의 다층살림집건물을 동시에 일떠세우자는것이였다.

일부 사람들은 건설경험도 없는 단위에서 일판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가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남일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의 웅대한 살림집건설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내무군의 기상과 용맹을 떨치며 과감한 공격전을 벌릴 때 뚫지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내세운 목표는 곧 실천투쟁으로 이어져 현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기 시작하였다. 모두의 앙양된 열의속에 공사를 시작한지 며칠만에 지대정리를 위한 100여m구간의 옹벽이 형성되고 기초굴착공사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게 되였다. 한편 구분대단위로 우물을 파서 공사에 필요한 물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고 휘틀을 만들기 위한 목재도 마련하였다.

이들은 공사의 첫걸음을 이렇게 내짚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살림집골조공사를 일제히 시작하였다. 여러 호동의 살림집골조를 동시에 일떠세우자니 골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하루동안에 소비되는 골재량만 하여도 백수십㎥에 달하였다.

골재소비량이 많은 조건에서 일부 호동의 살림집공사를 중지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때에도 부대의 지휘관들은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할 방도를 탐구해나갔다.

그 나날에 이들은 골재가 보장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능력이 큰 골재생산기지를 하루빨리 꾸리자는데로 의견을 합치였다.

—공사량은 방대하고 로력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닥친 난관앞에서 주저앉는것은 혁명군대의 일본새가 아니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이런 결사관철의 의지와 신념을 백배로 다지며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이렇게 되여 공사를 중단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투는 건설장과 골재장에서 동시에 벌어졌다.

건설장의 일부 로력을 돌려 골재장을 꾸리기 위한 전투를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그리하여 한적하던 강기슭에는 덩지가 큰 굴착기가 가동해도 끄떡없을 든든한 지반이 형성되고 생산건물까지 갖춘 골재장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골재장이 짧은 기간에 손색없이 꾸려짐으로써 살림집건설장의 숨결은 더욱 높아졌다.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공사실적을 높인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부대가 맡은 여러동의 다층살림집들은 키돋움하며 보란듯이 솟아올랐다.

공격전의 기수가 되여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는 과정은 완공의 날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과감한 공격전의 련속이였다.

보통때에는 너무도 평범한 이들이지만 공사과제수행에서는 모두가 공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로 되고있다.

이들은 한줌의 세멘트와 한토막의 강재라도 극력 절약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면서 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골조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량의 세멘트가 더 요구되던 지난 9월초였다. 화차보장조건으로 하여 세멘트를 실은 렬차가 현장에 도착하자면 아직 며칠이 걸려야 했다. 지휘관들속에서 론의가 분분하였다.

얼마후 현장과 멀리 떨어진 세멘트생산기지로는 군인건설자들을 태운 화물자동차들이 기운차게 달리였다. 렬차로 운반하게 된 세멘트를 하루빨리 실어오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던것이다.

이날 세멘트생산기지로 달려간 군인건설자들은 100여t에 달하는 세멘트를 화물자동차들에 실어 공사장으로 운반하였다.

이렇게 되여 여러날은 실히 걸려야 한다던 세멘트수송이 빠른 기간에 진행된 후 공사장의 숨결은 그만큼 높아져 부대는 살림집건설에서 당당히 앞자리에 들어서게 되였다.

부대는 여러 호동의 다층살림집건설과 함께 현대적인 고층살림집건설과제도 맡고있다. 이곳에서도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의 남모르는 위훈의 자욱은 뚜렷이 새겨지고있다.

3층 골조의 층막콩크리트치기를 마감단계에서 내밀던 때였다. 그때 기운차게 가동하던 권양기가 갑자기 동음을 멈추었다. 설비에 고장이 생겼던것이다. 긴장한 시간이 흐르던 그때 로창룡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스스로 맞들이를 들고 혼합물운반작업에 떨쳐나섰다.

권양기가 수리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도 탓할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공사의 매 단계마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완공의 날을 기어이 앞당기기 위해 투쟁하는 이들은 그 짧은 시간마저도 허락치 않았다.

운반작업이 시작되여 시간이 흐를수록 힘은 점점 진해졌다. 이들은 전화의 나날에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리던 인민군용사들을 생각하며 운반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하여 이들은 아름찬 량의 혼합물을 전부 운반하여 그날에 계획한 층막콩크리트치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로력투쟁에 의하여 머지않아 현대적으로 일떠선 살림집들에 우리 인민의 행복과 기쁨은 끝없이 넘쳐흐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원철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위대한 선군조선의 추억깊은 력사에 또 한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기며 영광스럽고 자랑찬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뜻깊은 올해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가슴마다에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건설의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온 긍지가 넘쳐난다.

올해에도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혁명인재육성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수많이 달성하였다.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여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세계를 내다보며 더 높이 비약할 배심과 자신심이 한껏 넘쳐나고 최첨단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나갈 의지와 욕망이 백배, 천배로 용솟음치게 하는 친필서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서한을 받아안은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심장은 뜨거운 격정으로 마냥 끓어번지였다.

고요한 서재나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교육기관들을 찾아 쉬임없이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시며 불멸의 교육지침을 마련해주신 그 로고가 가슴뜨겁게 사무쳐와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친필서한은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물론 온 나라 지식인들과 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

—주체교육발전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해준 고귀한 지침!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친필서한은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 지식인들이 지녀야 할 안목과 배짱, 자질과 창조정신의 높이를 밝혀준 귀중한 지침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 교육사업의 실태는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이 위대한 선군령장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지침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최첨단돌파의 불길드높이 내 조국의 밝고 휘황찬란한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창조와 혁신속에 밤을 지새우고 새날을 맞이하던 온 나라 교육자들은 얼마전 또다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개건된 평양무용대학을 몸소 찾으시여 일군들과 교원들을 뜨겁게 고무해주신것이였다. 가장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이 땅우에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을 일떠세워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당보지면과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우러르며 교육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지난 2월에는 평양시내 대학생들의 예술소조공연을 관람하시고 4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에서 대학생들의 수영경기를 몸소 보아주시며 새 세대들에게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을 한가득 안겨주시고 5월에는 머나먼 북변땅에 자리잡은 **김정숙**사범대학과 공로있는 대학으로 자랑높은 함흥화학공업대학을 찾으시여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신 경애하는 장군님,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 믿음이면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데 있겠는가.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어제는 새 세대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시며 모든 학생들이 지덕체를 갖춘 미더운 역군으로 자라나고있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더니 오늘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평양무용대학을 찾으시여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교육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으니 어느 시대, 어느 력사의 갈피에 우리 장군님처럼 후대교육사업에 이처럼 깊은 관심을 돌린 령도자가 있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올해에만도 여러차례 교육기관들을 찾아주시였으며 수십차례에 걸쳐 교육사업과 관련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은 모든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이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게 한 불씨였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볼수 있게 한 등대였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하기에 올해에는 교육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기상이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나래치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놀라운 성과들이 련이어 창조될수 있었다.

진정 올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된 위대한 전환의 해, 무궁번영할 내 조국의 밝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큰걸음을 내디딘 비약의 해이다.

세차게 타오른 최첨단돌파의 열풍

현시대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최첨단을 돌파하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하나를 창조해도 우리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도 용감하게 하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기술을 개척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된 변혁의 해에 교육부문에서도 이런 드높은 목표밑에 최첨단돌파전을 힘차게 벌리였다. 최첨단을 향하여 발걸음을 큼직하게 내짚은것, 이것이 올해교육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중의 성과이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더욱 개선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밝혀주신 력사적인 담화와 **김일성**종합대학에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교육대강으로,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교육체계를 정비, 개선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기 위한 수재교육체계를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정연하게 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최첨단수준에서 개선하는데 힘을 넣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치사상교육교양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교육내용이 보다 심화되고 정치사상과목 교수에서 선군혁명업적을 깊이있게 체득시키며 정치사상교육교양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교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진교육방법들이 탐구되였다. 그리하여 새 세대들이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와 우리 당의 투쟁업적, 선군혁명사상의 심오한 진수를 더 잘, 더 깊이 깨닫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생활화하게 하였다.

과학기술교육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국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첨단과학기술과목들이 개척되고 많은 과목의 교육내용이 현대화되였으며 원격교육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할수 있는 토대가 그쯘하게 갖추어졌다. 교수에서 정보기술, 콤퓨터응용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기초교육, 원리교육이 강화되고 보통교육부문에서 다매체직관물에 의한 교육수준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것은 최첨단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교육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 얼마나 자랑찬것인가.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에서는 콤퓨터와 텔레비죤수상기, 록화기, 다매체편집물을 리용한 교수와 실험실습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전국각지의 수재교육기관들과 중학교들에서 원격교육을 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많은 대학들에 전자도서관이 훌륭하게 일떠서고 전문학교, 중학교들에 전자도서열람실이 특색있게 꾸려지고있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는 수많은 교육지원프로그람들이 제작되여 교수와 실험실습에 적극 리용되였다. 수많은 교육단위들에서는 자체의 홈페지구축과 교육행정관리의 콤퓨터화, 모든 학과목들의 원격교육화를 비롯하여 교육의 정보화에서 놀라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 나라의 교육을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였다.

전국대학생 3, 4차원설계경연과 피복설계경연, 제11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람전시회를 비롯하여 올해 진행된 수많은 경연과 전시회, 과학토론회들은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높은 수준에 올라선 교육과학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교원, 연구사들속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실험실습설비의 CNC화는 물론 인민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수많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연구성과들만 하여도 수없이 많다.

올해에 수많은 교원, 연구사들이 학위학직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들로 자라났다.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는 영광을 지닌 대학들이 본보기대학으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졌다.

참으로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교육사업성과들로 빛나게 장식한 우리의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이다.

이 모든 성과들은 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 현명한 령도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교육혁명을 하여 교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자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도이며 결심이다.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내다보며 최첨단돌파를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전체 교육일군들과 교육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교육사업성과들로 빛내인 긍지드높이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보폭을 맞추며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리은남
백성근

따라배운다. 인민군군인들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적극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우리 식의 기술과 전술체계를 부단히 완성하여

올해에 진행된 국내축구경기들에서

뜻깊은 올해에 전국각지에서 국내축구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여 나라의 축구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특히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최상급축구련맹전과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 축구경기 등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축구열의를 부쩍 높여주고 우리 감독, 선수들에게 좋은 경기경험을 안겨주었으며 매 팀들의 육체, 기술, 전술적잠재력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들은 경기에서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지난 2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최상급남, 녀축구팀들의 전련맹전이 치렬하게 벌어졌다. 또한 9월에 진행된 최상급팀들의 축구경기에서는 조별련맹전과 승자전의 방법으로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뜻깊은 10월에 최상급팀들과 함께 지역별예선을 거쳐 올라온 여러 팀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된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 축구경기들은 수많은 관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올해에 진행된 최상급축구팀들의 경기들과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 축구경기들은 정신력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식의 경기원칙, 경기방법이야말로 필승의 보검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5차례에 걸쳐 최상급녀자축구경기에서 련이어 우승을 쟁취한 4.25팀, 여러차례의 최상급남자축구련맹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한 리명수팀 그리고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전국체육축전 남, 녀축구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여받은 만경봉팀만 놓고보아도 승리의 열쇠는 무엇보다도 자랑찬 경기성과로 나라의 축구발전에 이바지할 일념에 넘쳐 경기마다에서 사상전, 투지전을 힘있게 벌린 선수들의 강의한 정신력에 있었다.

1차 최상급축구련맹전에서부터 속도전, 기술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져 경기의 질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경기가 속도화되는 등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많은 경기들에서 중간지대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공격과 방어의 이행속도가 빨라졌으며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측면과 반측면돌파, 정확한 공련락과 차넣기, 머리받기 등에 의한 멋들어진 득점장면들이 수많이 펼쳐졌다.

4.25, 만경봉, 평양, 묘향산, 경공업성팀 등의 선수들속에서 재치있는 1:1빼몰기를 비롯한 세련된 공다루기로 상대팀의 방어진을 허물고 공격과 득점에 유리한 기회를 마련하는 높은 축구기술들이 발휘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나이별국가종합팀선수들을 많이 배출하고있는 4.25, 리명수, 평양, 기관차, 압록강팀을 비롯한 여러 최상급축구팀들의 경기들에 신진선수들이 많이 참가한것이 이번 경기과정에 보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였다. 비록 경험은 적지만 많은 신진선수들이 하루빨리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우수한 축구선수로 준비할 불타는 한마음을 안고 훈련의 나날에 다지고다진 육체, 기술, 전술적잠재력을 경기마다에서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팀의 승리에 적극 기여하였다.

올해의 축구경기들에서 경기지휘를 능란하게 한 감독들의 역할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였다. 특히 만경봉체육단의 남, 녀축구팀 감독들은 상대팀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등에 기초하여 팀의 전술방안들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경기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러 강팀들을 누르고 뜻깊은 10월의 축구경기에서 단연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창건 65돐경축 전국체육축전 축구결승단계 경기들에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여러차례의 11m차기장면이 펼쳐져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만경봉팀과 경공업성팀, 평양팀과 소백수팀, 리명수팀과 묘향산팀 등 여러 팀들사이에 벌어진 경기들에서는 11m차기로 승부가 결정되였다.

환희와 아쉬움이 엇갈리는 속에 진행된 이러한 경기들은 모든 팀 선수들에게 평시에 완강한 훈련을 통하여 담력과 배짱, 재치있는 차넣기기술을 키워나갈 때 조국이 바라는 훌륭한 축구선수로서의 자질을 더욱 튼튼히 갖출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었다.

올해에 벌어진 국내축구경기들은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축구열의를 더욱 높여주는데 적극 이바지한 의의깊은 계기들로 되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과 은정속에 마련된 올해의 국내축구경기들을 통하여 육체기술적으로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였으며 좋은 경험들을 쌓은 감독, 선수들이 새로운 높은 목표를 향한 진군길에 힘차게 떨쳐나섰다.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라!

시대를 격동시키는 당의 전투적호소가 이들의 심장마다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끝없이 분출시키고있다.

모든 축구감독, 선수들은 뜻깊은 올해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토대하여 세계축구발전추세에 맞게 우리 식의 축구기술과 전술체계를 부단히 완성해나가며 주체경기전법의 체현자들로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진군의 발구름소리를 더욱 높이 울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통일애국투사들이 받아안은 은정어린 생일상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장호동지와 우용각동지가 생일 아흔돐과 여든돐을 맞이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은정어린 생일상들을 보내시여 그들의 삶을 축복해주시였다.

서울시 마포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난 장호동지는 망국노의 설음속에 이국땅에서 막로동을 하며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은 그는 새 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후 신문사기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전쟁승리와 전후복구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적들에게 체포된 그는 30여년간 온갖 고문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혁명적신념을 끝까지 지키였다.

우용각동지도 녕변군의 빈농가정에서 태여나 일찌기 아버지를 잃고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다가 해방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그처럼 열망하던 배움의 희망을 활짝 꽃피웠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총을 잡고 조국보위성전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였으며 전후에도 군사복무의 나날을 위훈으로 빛내이였다.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된 그는 40여년간 죽음의 감방속에서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믿음, 혁명전사의 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적들과 당당히 맞서싸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십년간 혁명적지조와 의리를 지켜싸운 그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데려오게 하시였을뿐아니라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다 안겨주시였다.

생일상을 받아안은 장호동지, 우용각동지와 가족, 친척들, 통일애국투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조국의 부강번영에 적극 기여할 의지를 가다듬었다.

주조 무관단
룡정양어장 참관

【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주조 무관단이 29일 룡정양어장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양어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대규모의 양어장을 건설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양어못들과 단백먹이생산기지를 비롯한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무관단단장인 손연풍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첨단설비들로 장비된 양어장을 돌아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를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조선인민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레오나르도 뻬레스 메싸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은 참관을 통하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강성대국을 건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염주군인민병원에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해나가기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잘하고있다.

얼마전 병원으로는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실려왔다. 환자의 상태는 위급하였다.

즉시 환자를 살려내기 위한 치료전투가 진행되였다. 환자의 소생을 위하여 원장을 비롯한 많은 의사, 간호원들이 자기의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의료일군들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여러차례의 피부이식수술과 수혈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이 나날 과장 리선두, 담당의사 한정삼동무를 비롯한 외과의 의사, 간호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환자를 60여일만에 완치시켜 혁명초소에 다시 세웠다.

오늘도 이곳 의료일군들은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일군이라는 자각을 안고 의료봉사활동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영희

12월중 지자기현상

12월에 일기와 기타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4일, 6일, 10일, 12일, 20일, 25일, 27일, 31일.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평안북도인민병원에서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그것을 림상실천에 구현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얼마전 이곳 인민병원에서는 의학과학기술성과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160여건의 론문들과 130여종의 의료기구들, 90여점의 새로운 의약품들이 전시되여 찾아오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의 요구에 맞게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전시회를 통하여 의학과학기술을 한계단 발전시켜나가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올해에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모두가 한가지이상의 의료기구들과 의약품, 론문들을 내놓을수 있게 목표들을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병원당조직에서는 의료일군들속에서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높여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면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하나만들어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만들도록 이끌어주었다.

병원의 유승영, 김병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의사들속에 들어가 의학론문집필을 성의껏 지도방조하고 효능높은 의약품들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와 자재들도 보장해주었으며 합리적인 의료기구들을 창안하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가치있는 전시품을 내놓을 일념안고 이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과장 리종일동무와 과의 의사들은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면서 의학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가치있는 의학론문들을 연구완성하였다. 간호원들도 환자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료기구들을 창안제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약국안의 약제사들은 우리 나라 약초자원에 의거한 고려약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여 새로운 고려약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특히 약제사 최순애동무는 최신의학과학기술성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효능이 높은 여러가지 고려약들을 새로 만들어냈다.

박창혁, 윤경일, 리종일, 최영호, 우영관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도 의학과학기술발전과 림상실천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가치있는 론문들을 집필완성하였다. 과장 명철성동무는 지난 시기 치료경험에 기초하여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도 치료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창안하여 내놓았으며 의사 장철만동무는 어느 한 질병진단과 관련한 새로운 론문을 연구완성하였다. 과장 허윤철동무는 일산화탄소중독때의 치료방법을 새롭게 연구완성하여 전국에 일반화할수 있게 하였으며 약제사 김현철동무도 환자치료에 특효가 있는 주사약을 새로 개발하였다.

이밖에도 병원안의 의사, 약제사, 간호원들은 고려약을 엑스화할수 있도록 능률높은 착즙기를 창안제작하고 태양열에 의한 액체가온기, 장파감응치료기 등 의료기구들과 의약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놓았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8월에 진행된 제13차 전국보건부문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의학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병원의 의료일군들의 자질은 훨씬 높아졌으며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이 개선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특파기자 김기두

청진시 수남구역 말음중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험실습과 련습은 배운 리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공고히 하며 응용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는 중요한 교수형태들입니다.》

청진시 수남구역 말음중학교는 지난 기간 당의 교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잘하여 영웅을 9명이나 배출한 자랑많은 학교이다. 최근 2년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된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에서 수많은 교원들이 증서를 받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학교의 교육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실험실습조건을 그쯘히 갖추어놓고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그들의 응용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고있는것이다.

지난 어느날 학교에서는 교육의 현대화수준을 보다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가 열리였다.

—우리는 이미 실험조건을 잘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수 없다.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실습조건도 응당한 높이에서 갖추자.

교장 최암석동무의 길지 않은 말은 교원들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날의 협의회를 계기로 교원들은 자기들의 사업에 빈구석이 있음을 깨닫고 분발해나섰다.

실험실습조건을 잘 갖추어놓고

일군들은 콤퓨터로 조종되는 지리학습터를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치였다. 목적은 학생들이 콤퓨터로 땅속온도, 높이와 경사면에 따르는 토양온도, 같은 조건에서 부식토와 모래, 진흙 등의 온도는 물론 바람속도도 볼수 있게 하자는데 있었다. 수업도 보장하면서 일군들과 교원들은 온도와 속도수감장치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낮에 밤을 이어 고심어린 사색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들은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한몫한다는 긍지로 힘든줄 몰랐다.

결과 현대적인 수단을 통하여 학생들이 여러가지 온도와 바람속도를 잴수 있는 교육조건이 마련되였고 교육사업에서 큰 은을 내게 되였다.

자동차구조실습실과 자동차운전실습실을 꾸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수준이 한계단 높아졌다.

하기에 학교는 지난해에 여러차례나 콤퓨터에 의한 지리학습터와 자동차구조실습실, 자동차운전실습실에 대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룩된 성과는 다른 단위들에 널리 일반화되고있다.

본사기자 오철훈

어리석은 야망은 실현될수 없다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그 무슨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고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용납 못할 무장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무모한 불장난소동을 벌려놓으려 할 때부터 우리는 쌍방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포사격놀음을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후과에 대해서도 알아들을만큼 경고하였다. 그러나 남조선호전광들은 그에는 아랑곳없이 군사훈련의 명목으로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에 강력한 물리적대응타격을 가하여 감히 우리측 령해에 불질해대는 도발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의 신성한 존엄과 령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사태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은 오히려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무력도발》이니, 《위반》이니 하고 떠벌이면서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있다. 그것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괴뢰들의 이번 도발은 날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불순한 책동의 연장이다. 그들의 속심은 포사격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리적대응이 없는 경우 우리가 연평도의 주변수역을 저들의 《령해》로 인정했다고 오도하려는데 있었다. 사태는 괴뢰들의 이번 도발이 《북방한계선》에 대한 무언의 인정을 받아보려는 치밀하게 계산되고 타산된 또 하나의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벌이는 이른바 《북방한계선》이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불법비법의 유령선이다. 괴뢰들은 바로 이것을 걸고 이번 군사적도발행위를 정당화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정전협정에 따르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연장선 북쪽과 서쪽의 모든 해역은 조선인민군측의 관할구역에 속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유엔군》측도 우리측 군사통제하의 수역에서 5개 섬들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만을 관할한다고 명백히 밝히였다. 지난 시기 미군함선들이 우리 수역에 있는 서해 5개 섬에 드나들 때 멀리 공해로 에돌아다닌것은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에 따른것이다. 괴뢰국방부도 그에 대해 인정한바 있으며 남조선언론들도 《〈북방한계선〉을 합법적인것처럼 주장하는 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있다.》고 주장하였었다. 《북방한계선》이 조선정전협정에 어긋난다는데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 조미군부장령급회담때 미군측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호전광들이 떠드는 이른바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이 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극히 허황한것임을 실증해주고있다.

유엔해양협약과 남조선의 이른바 《령해법》을 놓고보아도 《북방한계선》은 엄연히 우리의 령해에 들어와있으므로 경계선으로 인정될수 없다. 더우기 국제법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대국령해안에 들어있는 섬의 수역문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미 체결한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합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과 남조선이 서해 5개 섬의 수역문제를 두고 우리와 합의한것은 전혀 없다. 남조선당국의 일방적인 《북방한계선》주장은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황당한 나발이다.

명백히 하건대 《북방한계선》이라는것은 조선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요구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불법적인 선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이번 도발사건을 놓고 그 무슨 《정전협정위반》이니 뭐니 하고 떠드는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랑설이다. 제반 사실은 《북방한계선》을 합리화하고 어떻게 하나 《고수》해보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책동이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억지공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북방한계선고수》책동은 그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북침전쟁도발기도의 발로이다.

지금 남조선군부세력은 이번 사건을 구실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린다, 《비상동원령》을 발령한다 하고 부산을 피우면서 북침전쟁열을 극도로 고취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은 지금까지 《북방한계선고수》를 계속 고집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감한 해역인 조선서해해상에 전투함선들과 어선들을 불법침입시켜 정세를 극도로 야기시켰다. 그로 하여 지난 시기 조선서해에서는 북남쌍방사이에 엄중한 군사적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군 하였다.

현 보수당국의 집권후 호전광들의 《북방한계선고수》책동은 극히 무모한 단계에서 감행되고있다. 보수패당은 집권하기 바쁘게 《북방한계선》을 《령토적개념의 견지에서 절대로 양보하여서는 안된다.》고 떠벌이며 그의 《고수》를 정책화하였다.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우두머리들은 《북방한계선》이 저들의 해상경계선이라느니, 《〈북방한계선〉을 중심으로 공중수호임무를 수행할것》이라느니 하는따위의 도발적인 폭언들을 줴치면서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빈번히 나타나 《북방한계선고수》를 위한 작전모의를 벌리는 한편 서해 5개 섬수역의 전반무력에 대한 협동작전과 화력지원임무를 선제공격적으로 새롭게 확정하였다. 호전광들은 문제의 수역에 전투함정들과 포, 미싸일을 비롯한 무력을 증강하고 《30분출동대기부대》라는것을 주둔시켰으며 군용기를 리용한 특수전훈련도 비밀리에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서해해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훈련을 광란적으로 감행하였다.

지금 남조선호전광들이 또다시 《북방한계선》을 코에 걸고 억지주장을 늘어놓으며 불집을 야기시키는것은 한마디로 이번 사건을 북침전쟁도발의 발화점으로 써먹으려는 위험천만한 범죄적기도의 발로이다. 이번에 리명박역도가 우리에 대해 《몇배로 응징하라.》고 피대를 돋군것은 사건을 더욱 확대시켜 기어코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서해수역에는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고있다. 그것이 언제 어느 시각에 전면전의 불길로 타번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전쟁의 불씨를 안고있는 《북방한계선》을 철폐할 대신 그것을 《고수》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까지 감행한 남조선호전집단에 대한 온 민족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 인민들은 《북방한계선》은 《전쟁위험의 한 요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중대한 장애》라고 주장하면서 보수당국의 무모한 대결전쟁책동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괴뢰들의 《북방한계선고수》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전쟁광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이번 사건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한사코 《북방한계선고수》책동에 매여달린다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것이다.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0.001㎜라도 침해하는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기질이다.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남조선호전광들의 어리석은 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다.

은 정 철

체제대결기도를 드러낸 모략소동

동족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남조선집권세력의 책동이 여기저기서 계속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유엔에서 외세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적인 《북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한데 이어 그에 서슴없이 지지표를 던지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뿌리깊은 반공화국대결야망의 뚜렷한 발로로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침해이며 국제적인 반공화국압살소동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비렬한 술책이다.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관념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어서 《인권》소동은 핵소동과 함께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며 나아가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제도를 해치기 위한 악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은 집권하자마자 터무니없이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요란히 떠벌이며 미일상전들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해마다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벌려왔다.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그들은 제13차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우리의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북인권결의안》조작에 적극 가담하였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유엔에서 《북인권》이니 뭐니 하는 도발소동을 벌린것은 국제적으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려놓고 체제대결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이 극도의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번에 보수패당이 그 무슨 《결의안의 내용을 지지》한다느니,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한다.》느니 하는따위의 망발을 늘어놓은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국가적시책으로 인민들의 경제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는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있는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민주의 불모지, 근로인민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몹서리치는 인권페허지대는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얼마전 남조선법정이 반역《정권》의 강제적인 주택철거만행에 항의하여 생존권사수투쟁을 벌리다 파쑈당국의 무자비한 탄압만행으로 억울하게 불에 타죽은 철거민들을 오히려 죄인으로 모는 판결을 내린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립증이다.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장, 감행하고 그로 인하여 최악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보수패당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소롭고 역겨운짓이라 아니할수 없다.

남조선괴뢰들이 모략적인 《북인권》문제를 운운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국제무대에서 벌려놓고있는 《인권》소동은 철두철미 우리 제도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격화,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당국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범죄적성격이 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다. 겨레의 날로 높아가는 북남관계개선요구에 질겁한 남조선보수패당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결을 계속 격화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조선서해상에서 악명높은 북침전쟁연습인 《호국》훈련을 벌려놓은 괴뢰들은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유엔에서 벌려놓은 《북인권결의안》조작가담책동도 괴뢰들의 시종일관한 반공화국대결전쟁정책의 연장이다. 그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꼬물만큼도 바라지 않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의 골수에는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고 북침야망을 실현할 흉심밖에 없다. 유엔무대에서의 《북인권결의안》채택놀음과 조선서해에서의 군사적도발책동이 그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야 결딴이 나든말든, 민족의 운명은 어찌되든 아랑곳없이 대결전쟁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민족반역세력이 아닐수 없다.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털끝만치라도 모독하고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혁명적기질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심 철 영

잡지 《백두-한나》 11월호 발행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11월호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곽백웅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위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기념 군중대회에 참석하신 소식,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의 아들 모안영동지의 묘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신 소식을 잡지는 집중편집하였다.

잡지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이 보고회와 예술공연,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을 진행한 소식을 게재하였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심양시에 살고있는 동포들이 참전자들과 함께 좌담회, 예술공연, 연회를 진행한 소식을 잡지는 편집하였다.

잡지는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우리의 핵억제력보유는 천만번 정당하다》와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의 담화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를 실었다.

잡지는 이밖에 조국소식 등을 소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주장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리경원이 23일 단체결성 20돐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범민련이 결성이후 남과 북, 해외의 3자련대를 확고히 실현하고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투쟁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사이의 래왕과 접촉, 협력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여왔지만 리명박《정권》이 들어선 이후 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범민련 남측본부가 당국의 악랄한 탄압속에서도 분렬의 장벽을 마스고 외세를 몰아내며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고 말하였다.

단체가 앞으로도 6.15자주통일시대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진보진영의 단결을 이룩하여 현 《정권》을 심판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파쑈악법철폐를 위한 활동을 광범히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산하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장창준이 21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현 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들고 남북관계개선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10 통일백서》에서 저들의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운운하는 등 대결정책을 고집하고있는데 대해 글은 언급하였다.

글은 조선반도위기고조에 대한 책임은 무엇보다 리명박《정부》에 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광신자들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의 군사연습은 도발적성격을 띠고있다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 부서기장이 강조

24일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로씨야련방안전리사회 부서기장 올라지미르 나자로브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였다. 그는 조선반도지역에서의 군사연습은 허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반도정세는 특별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는 우리를 특별히 불안하게 하고있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활동이 강화되여 생긴 론리적귀결이다. 남조선이 군사분계선부근에서 진행한 모든 군사연습은 도발적성격을 띠고있다.

군사연습은 무력사용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전지역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며 국제적안정을 위협하고있다. 조성된 사태는 보다 엄중한 충돌을 초래할수 있다.

평화는 외국군대의 항공모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
로씨야고려연통일련합회 성명 발표

로씨야고려연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27일 《평화는 외국군대의 항공모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23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공화국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내리기마련이라고 하면서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하자마자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북남사이의 접촉과 협력관계에 로골적으로 빗장을 질렀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도발사건은 한마디로 집권초기부터 외세에 빌붙어 동족간의 대결을 고취해온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 반통일대결정책의 산물이라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지금 미국이 때를 만난듯이 조선서해에 항공모함을 들이밀며 붙는 불에 키질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성스러운 길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위험천만한 련합훈련중지를 요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학술본부, 청년학생본부가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련합훈련중지를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도 참가하는 조선서해에서의 남조선미국련합훈련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이 더욱 높아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군사적대결이 격화되여 전면전쟁이 일어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민족이 입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있는 때에 핵항공모함을 투입하여 전쟁연습을 벌리는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북침을 노린 련합훈련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브라질정계인사 담화 발표

브라질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장보좌관 뻬드로 데 올리베이라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조선서해해상에서의 엄중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브라질공산당 당원들은 남조선괴뢰들의 도발책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가고있는 조선로동당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은 23일 조선서해 연평도에서 조선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탄을 쏘아대는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괴뢰들의 이번 군사적도발은 이른바 《어선단속》을 구실로 괴뢰해군함정들을 조선측 령해에 빈번히 침범시키면서 날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다.

조선인민군은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도발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하는 단호한 군사적조치를 취하였다.

브라질공산당은 조선서해에는 오직 조선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존재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단죄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이 23일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한 괴뢰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단죄하는 글을 실었다.

글은 발광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시키고있는 남조선당국이 이날 북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단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언론들은 사태를 외곡하여 보도하고있으며 통일부는 때를 만난듯이 25일 개최하기로 예정되였던 북남억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시켰다고 글은 비난하였다.

글은 동포들이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호침몰사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이번 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모든것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초래한 후과라고 글은 주장하였다.

글은 리명박《정부》가 있는한 북에 대한 도발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기습선제타격을 위한 전투기개량놀음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보유하고있던 《A—10A》습격기를 성능이 훨씬 개량된 《A—10C》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A—10》습격기는 지상무력에 대한 항공지원역할을 담당하고있는데 지난 시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불장난들에 투입되여 악명을 떨쳤다.

이번에 교체된 《A—10C》습격기는 신형정보교환, 개량된 화력통제 및 전자전방어체계 등을 갖추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미호전세력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호전광들은 이번에 교체된 《A—10C》습격기에 합동정밀직격탄과 같은 정밀타격무기를 탑재할수 있다고 떠벌이였다.

《A—10C》습격기가 탑재할수 있는 정밀타격무기는 지하시설파괴용으로 알려져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제침략군은 이러한 정밀타격무기들을 최신전투기들에 도입하는것을 위주로 하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장비할수 있는 《A—10C》습격기를 배비함으로써 북침선제공격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이런 방법으로 미제호전광들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의 지상목표물은 물론 지하목표물에 대한 타격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획책하고있다.

호전광들이 이번에 교체된 《A—10C》습격기를 두고 《북의 기지를 타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수작을 늘어놓은것은 그들이 벌려놓은 이번 습격기교체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실증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 첨예하고 긴장하다.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호국》이라는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남조선괴뢰군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선서해 연평도일대의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에 달하는 포탄을 쏘아대는 위험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로 하여 쌍방간에 무장충돌이 일어나고 언제 또다시 충돌이 재개될지 알수 없는 초긴장상태가 조성되였다.

우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날이 격화되고있다. 이것이 과연 누구때문인가 하는것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어제는 최신예전투기라고 하는 《F—22A랩터》전투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오늘은 또 합동정밀직격탄까지 탑재할수 있는 《A—10C》습격기를 끌어들이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남조선괴뢰군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장도발과 북침전쟁에로 부추기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제침략군이다.

지금 미제호전광들은 그 누구의 《위협》나발을 요란히 불어대면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격화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듯이 허튼 여론을 내돌리지만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핵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남조선정국을 뒤흔드는 부정부패사건

망하는 집에 싸움이 잦다고 최근 남조선에서 민간인불법사찰과 청목회사건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관련기관들이 비법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을 감행한 사건에 이어 여당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로임을 인상해달라는 청탁과 그 대가로 막대한 액수의 후원금을 받아먹은 일명 청목회사건이 터지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6일 서울북부지역 검찰이 뢰물을 받은것으로 의심되는 여야《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과 가택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는데 이것을 발단으로 시작된 검찰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내부의 갈등은 나날이 격화되고있다. 더우기 검찰측이 혐의대상의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령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서겠다.》고 을러멘데 이어 3명의 민주당소속 관계자들을 련이어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야당세력은 강력히 반발해나섰다.

검찰측은 《민주당관계자들이 계속 소환에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령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불법후원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기때문에 그들을 긴급체포하였으며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있다고 공표하였다. 격분한 민주당인사들은 즉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였다. 민주당은 론평을 발표하여 민간인불법사찰과 청와대손전화기사건수사에서는 직무태만이던 검찰이 이번에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며 야당을 탄압하고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그도그럴것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사건과 그 후 민간인불법사찰의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한 청와대손전화기사건수사때 검찰당국은 《범행을 립증할만 한 자료가 없다.》느니, 《수사할 의사가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지어 사건을 무마해버리려 하였다. 그러던 검찰이 이번에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닦듯 매우 신속하게 달라붙으면서 끝까지 파고들어 잡도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에서는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을 감추어온 검찰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여론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얼마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인사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파잉수사》,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을 덮어버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보복수사》, 《물타기수사》라고 락인, 규탄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야당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의 이 도전적인 발언은 야당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것은 그대로 《국회》혼란을 가져오고있다. 지난 8일에 이어 17일에도 민주당의 《국회》참가반대결정으로 하여 래년도 《예산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였던 《국회》는 파탄되고말았다.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국회예산안》심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의원총회에서 남조선집권자와 그의 형 그리고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어둠의 삼각권력》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대표는 며칠전에도 100일 《국회》롱성투쟁을 벌리며 집권자에게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일것을 요구하고 청와대를 항의방문하였다.

민주당뿐이 아니다. 지난 18일 원내대표모임을 가지고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하여 당국에 《국정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한 민주당과 민주로동당 등 5개 야당은 19일에는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검찰이 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뢰물을 받은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라는 민중의 요구를 담아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검《법안》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극도로 바빠맞은것이 다름아닌 《한나라당》패거리들이다. 청목회사건에 저들도 관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어느 정도 야당들과 목소리를 합쳐온 《한나라당》은 각계의 비난의 화살이 당국에 쏠아지고 사태가 점점 저들에게 불리해지자 당황망조해하였다. 《국회예산안》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저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이 실현될수 없기때문이다. 이로부터 《한나라당》은 야당세력을 비난하는 한편 그들이 계속 《국회예산안》심사를 반대할 경우 그것을 단독으로라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였다.

결국 검찰과 정치권의 충돌이 래년도 《국회예산안》심사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사이의 첨예한 갈등으로 번져진것이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권력형부정부패행위로 어지럽기 그지없는 남조선의 현 정국이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반인민적정치의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물은 들출수록 악취를 풍기며 곪은 종처는 터지기마련이다. 오늘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썩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다 못해 침을 뱉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사태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전쟁도박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위기사태에 직면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지난 22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호국》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23일에는 조선서해 우리측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한 우리 혁명무력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대응타격으로 적들의 군사적도발은 저지되였지만 사태는 다른 방향에서 험악하게 번져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불은 저들이 지르고는 그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날강도적으로 흑백을 전도하면서 《북의 무력도발저지》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미호전세력들은 남조선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지원》을 떠들며 대조선군사적압력의 도수를 고도로 높이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다치면 터질듯 한 위기일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호국》군사연습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애당초 이번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것이다.

미제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릴 때마다 조선반도정세는 예측할수 없는 위기국면에 접어들군 하였다.

지난 3월에도 미제는 숱한 전투함선들을 동원하여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조선서해에서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다가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는 그것을 무작정 우리의 《소행》인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이끌어갔다. 이번에 미제의 묵인하에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우리측 령해에 수십발의 포사격을 가한것은 무기의 오동작이나 사격방향을 잘못 잡아서 초래된것이 아니라 《천안》호사건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제2조선전쟁을 노린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엄중한 무장도발행위이다. 이것은 《천안》호사건과 같이 이번 연평도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배후조종한 장본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연평도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조선서해에 끌어들이고 남조선괴뢰들과 새 전쟁도발을 노린 대규모전쟁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은것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호국》군사연습을 통해 미제가 추구한 작전적의도이기도 하다.

미제는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벌리는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통해 북남사이의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공고히 하는 한편 남조선괴뢰들을 대조선, 대아시아전략수행의 총알받이로 써먹을수 있게 준비시키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이에 따라 미제는 괴뢰들에게 전쟁장비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동시에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련이어 벌리면서 우리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이번에 조선서해상에서 감행된 우리측 령해에 대한 도발적인 포사격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리는 전쟁연습이 명실공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군사적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불장난소동이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미제가 떠드는 우리의 그 무슨 《군사적위협》은 저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을 합리화하고 전쟁구실을 얻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느낄 대신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날로 더욱 무모해지고있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추고있다. 적들의 도발에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것은 우리의 자주적대응방식이다. 우리는 빈말을 할줄 모른다. 이번 우리 군대의 즉시적인 자위적대응조치가 그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남조선호전광들과 야합하여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예측할수 없는 강력한 대응타격으로 대답할것이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

미국은 잘못된 군사적타산을 버리고 현 사태를 랭철하게 대하며 모험적인 전쟁도박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

백 문 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지금 남조선괴뢰패당이 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에 우리 군대가 응당한 징벌을 가한데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일대 반공화국모략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 《괴뢰패당은 격동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와 기개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를 26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여 이번 사태는 남조선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무모한 군사연습이 빚어낸 엄중한 후과라고 주장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이 올해에 들어와 조선서해와 동해 등지에서 전쟁연습을 더욱 빈번히 강행하였을뿐아니라 그 장소도 점차 조선측 가까이에 접근시켜 나중에는 조선측 령해에 대고 대포를 쏘아대면서 불장난을 벌리는데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를 가만히 구경만 하겠는가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이번 남조선의 군사적도발이 북남관계개선을 파탄시키고 심각한 대내외적고립과 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의 산물이고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에 대한 조선의 《무언의 인정》을 받으려는 흉계에 따른것이라고 까밝혔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이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끌어들여 미국과 함께 조선서해에서 최대규모의 련합훈련을 벌리려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쟁전야의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이 또다시 조선의 존엄과 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보다 무서운 불벼락을 안겨 적의 아성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에 대해 언급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비서이며 꾸바국가리사회 위원장인 라울 까스뜨로내각수상이 21일 내각확대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2011년도 인민경제계획과 예산을 잘 세우는것은 2011—2015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그러자면 경제활동에서 자재와 금융 및 인적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당사업의 선차적인 과업이라고 하면서 그는 당중앙위원회뿐아니라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경제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토의하며 계획수행을 위한 통제를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 진행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정부수반리사회 회의가 25일 따쥐끼스딴의 두샨베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들인 따쥐끼스딴, 중국, 로씨야,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 우즈베끼스딴정부수반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장본인으로 미국을 단정

26일 꾸바의 텔레비죤방송에 의하면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23일 조선서해에서 북남사이의 포격전이 있은 후 이 지역정세가 매우 긴장한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천안》호침몰사건이 미국에 의하여 조작된것처럼 이번 사건도 미국에 의해 조작된것일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자기의 침략계획에 따라 조선반도 등지에서 핵전쟁을 포함한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다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의 경고에 대해 언급하고 지금 조선반도에서 《천안》호사건과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이 처음에는 불명확하였지만 후에는 미국에 의하여 조작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사건도 미국의 조작에 의한것일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부르끼나파쏘에서 대통령 선거

블래즈 꼼빠오레가 부르끼나파쏘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최근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대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25일 이 나라 선거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새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스리랑카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가 19일 취임연설에서 새 정부의 과업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분쟁이 종식된 북부와 동부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을것이라고 밝히고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된다고 말하였다.

평화를 떠난 발전이란 있을수 없으며 발전이 없으면 평화가 유지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나라의 안정과 진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강화를 호소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16일 한 외교석상에서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역나라들이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안보분야에서 호상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외국무력의 주둔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는 지역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서방의 패배를 예고

도이췰란드정부 아프가니스탄담당특사가 18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서방의 패배를 예고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서방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있었다고 하면서 서방은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프가니스탄문제의 군사적해결이란 있을수 없으며 이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라고 그는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리용은 세계적추세

세계적으로 핵에네르기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최근년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이와 함께 에네르기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반면에 화석연료자원이 고갈되여가고있는 현실은 국제적으로 에네르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용연료를 적극 리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적극화되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은 어느 한 국제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2030년에 핵에네르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60%이상 장성할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핵반응로수는 30개 나라에서 430여기에 달하며 최근 60여개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건설할 의향을 표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많은 나라들이 핵에네르기를 주요에네르기원천으로 간주하고 그 개발과 리용을 지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원자력발전능력장성속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곳은 아시아지역이다.

2008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건설중에 있는 원자로 34기중 19기가 아시아에 있으며 새로 조업한 원자로 39기 가운데서 28기가 역시 아시아에 있다고 한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주요설비를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중국은 그것을 핵에네르기를 리용한 전기생산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고 원자력발전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고있다.

이란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세우고 필요되는 연료를 자체로 해결하여 올해에 핵연료생산국으로 될 목표를 제기하였다. 이란원자력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약 400개의 우라니움광산이 확정되였으며 이것이면 후대들이 핵에네르기의 덕을 보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10년내에 적어도 1 000MW능력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고 그를 적극 추진하고있는 방글라데슈에서는 수도부근에 발전능력이 600MW이상인 첫 원자력발전소를 일떠세우려 하고있다.

우라니움자원이 풍부한 경제적유리성을 가지고있는 아프리카지역에서 핵에네르기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아프리카와 나이제리아, 에짚트, 케니아, 우간다 등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이 원자력위원회를 내오고 핵에네르기개발리용사업에 달라붙고있다. 가나정부는 2018년까지 발전능력이 40만kW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공사를 추진시키고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브라질은 다른 나라들과 평화적핵에네르기리용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아르헨띠나는 우라니움농축을 포함한 핵계획을 재가동시킨다는것을 선언하였다.

메히꼬에서는 현재 나라의 동남부지역에 첫 원자력발전소가 세워져 운영되고있는데 이 발전소의 년간발전능력은 68만 3 000kW에 달한다.

이처럼 오늘 세계적으로 평화적핵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는것은 하나의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있다.

평화적핵에네르기개발리용은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빼앗길수 없는 권리이다.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할 권리는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로 될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문제로 되는것은 일부 서방세력들이 저들의 마음에 드는 나라들의 핵활동은 묵인, 협력하면서도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평화적핵활동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걸고들어 문제시하면서 압력과 제재소동을 벌리는 등 불공정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있는것이다.

일부 서방나라들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있는 나라들은 마치도 평화적핵개발권리가 없는듯이 주장해나서고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약밖에 있는 이스라엘과 인디아, 파키스탄 등 나라들도 전력생산을 위한 핵발전소들을 건설운영하고있다.

평화적핵활동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는 국제사회 모든 성원들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 나라가 주체적인 핵동력공업구조를 완비하기 위하여 자체의 경수로발전소건설에로 나가는것은 국제적인 핵에네르기개발리용추세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그것은 또한 우리 나라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경수로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연료보장을 위해 수천대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인 우라니움농축공장이 돌아가고있다. 전력수요해결을 위한 평화적목적의 핵에네르기개발사업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현 도

《강산은 변함없고 친선은 영원하다》

중국신문들 글 게재

중국의 《해방군보》 20일부가 《강산은 변함없고 친선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인민지원군 로병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실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60년이 흘렀다.

피로 물든 강산이 있고 전우들이 묻혀있으며 생사를 같이한 인민이 있는 땅, 꿈속에서도 잊지 못할 이 땅에 우리는 다시 돌아왔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을 맞으며 80고령의 지원군로병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전 공군사령원 왕해의 인솔하에 지원군렬사들의 피가 스며있는 조선땅을 밟으며 혈전의 나날들과 중조인민의 피로써 맺어진 친선을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60년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진군하였을 때처럼 지원군로병들은 또다시 조선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오랜 친지들을 보는 지원군로병들의 눈에는 격정의 눈물이 가득 고였다. 옛싸움터에 돌아온 지원군로병들은 조선측의 열렬한 환대와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을 느꼈다.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할 때 많은 평양시민들이 얼굴에 웃음을 담고 마치 오래동안 헤여졌던 친형제를 만나는것처럼 달려와 인사를 하였다.

지원군로병들이 웅장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대문앞에 이르니 소년단환영대렬이 꽃다발을 흔들며 춤과 노래로 맞이하였다.

어린이들은 지원군로병들에게 춤과 서예, 수예작품 등을 보여주었다.

시내를 거닐든 농촌을 지나든, 인민군전사든 중학교, 소학교학생들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에 훈장을 가득 단 지원군로병들을 보기만 하면 모두가 다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였다.

시간은 모든것을 지워버린다 하지만 중조인민이 피로써 맺은 친선은 60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있다.

글은 로병대표단이 개성과 회창에 있는 지원군렬사묘를 찾아 전우들을 추모한데 대하여 상세히 전하고 조선방문기간 지원군로병들은 지난 60년동안 두 나라 로세대혁명가들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친선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 중조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는것을 절절히 느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광명일보》 20일부는 《조선을 가까이에서 보며 많은것을 느꼈다》라는 제목으로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성원으로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리월의 글을 실었다.

필자는 글에서 《평양인상》,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애국주의교양》,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높은 인민》이라는 소제목들을 달고 우리 나라 방문인상을 렬거하면서 방문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대표단은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배우기 좋아하며 생활을 사랑하는 조선인민의 고상한 풍모를 깊이 느낄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고 대성산혁명렬사릉, 인민대학습당 등 여러곳을 참관하는 과정에 우리 인민의 숭엄한 정신세계와 우리 나라에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대해 느낀 소감을 피력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행사들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한데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의 경제는 아직 어려운 편이고 사람들의 생활은 그닥 유족하지 못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정신생활은 매우 풍부하다.

대학에 가나 명승지에 가나, 공장에서나 밭머리에서나 할것없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부터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에 대해 칭송하였다.

조선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배우며 살림집과 병치료를 무상으로 받고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조선사람들은 질서있고 례절밝으며 침착하고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민주꽁고에서

민주꽁고의 북끼부주에서 최근 페염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되였다.

다음해 1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접종깜빠니야기간에 1살미만의 모든 갓난아이들이 왁찐을 접종받게 된다고 22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민주꽁고에서는 페염이 어린이들의 사망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캄보쟈에서

캄보쟈에서 에이즈의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1일 이 나라 정부는 4만 1 170명의 에이즈환자 및 에이즈비루스감염자들에게 치료약이 공급되고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노력에 의해 현재 전국적으로 15살부터 49살까지의 주민들속에서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이 1998년의 2%로부터 0.6%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에이즈방지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여기에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하였다.

나이제리아에서

나이제리아에서 소아마비방지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전국적으로 소아마비환자수가 종전의 최고기록인 35만 6 000여명으로부터 현재 1 000명이하로 줄어들었다.

20일 나이제리아정부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가까운 기간에 나라에서 소아마비를 완전히 없앨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에서

브라질에서 올해에 들어와 10월까지 2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조성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것으로 된다.

본사기자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

미국이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주군사화책동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그 한 고리로 미국은 21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캐너버럴기지에서 새로운 정탐위성을 발사하였다.

이 위성은 다른 나라의 통신들을 도청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영국에서 전쟁을 반대하여 아프가니스탄 시위

월간국제정세개관

복잡하고 불안정해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정세가 복잡하고 불안정해지고있다.

이달에 동북아시아와 중동 등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이전시기보다 더 위험한 대결구도가 형성되는 움직임이 뚜렷해졌으며 예상치 않았던 충돌들이 일어났다.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크게 떠들었다.

이달 중순 미국회 《미중경제 및 안전평가위원회》가 중국이 아시아에 있는 6개의 가장 큰 미군기지중 5개를 미싸일로 타격소멸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 아시아에 있는 미군기지들뿐아니라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항공모함들도 위험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 미국의 CNNTV방송은 국내에서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미국인들의 반수이상이 중국의 경제력을 《위협》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언론들은 이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중국위협론》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고 전하였다.

그렇다면 실지로 중국의 《위협》에 의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위험에 빠지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력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해를 준다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중국은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순수 자위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있다는것을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미국이 떠드는 《중국위협론》은 타당성이 없는 허구이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은 오히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위협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최근 미당국자들이 일본, 남조선, 오스트랄리아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행각하였다. 이들의 행각과정에 주요하게 론의된것이 바로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사이의 《군사적협력》, 이 지역에서의 미군무력증강문제였다.

미국방장관 게이쯔는 미국이 아시아전역에서 미군병력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오스트랄리아군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오스트랄리아와 보다 긴밀한 군사적협력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실무그루빠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일본, 남조선에 미군을 장기주둔시키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의 위험성은 오스트랄리아를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체계에 끌어들여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고 그것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전략실현의 지렛대로 써먹으려 하는데서 나타났다. 지난 8일 미국, 오스트랄리아외무상 및 국방상들의 참가하에 진행된 이른바 《2+2》회담에서 두 나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군국주의야망을 품고있는 일본을 침략적대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에 보다 유용하게 써먹자는 속심을 내비친것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속심으로부터 미국은 이달에도 일본《자위대》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침략의 돌격대로 길들이기 위한 놀음을 벌렸다. 일본의 혹가이도에서 주일 미군은 일본륙상《자위대》와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직승기를 통한 수송과 륙상전개 등 각종 훈련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발광적으로 벌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을 비롯한 《잠재적적수》들을 견제, 제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책동이다. 이로 하여 중미간의 군사적대결구도가 부각되였다. 얼마전 로씨야의 한 군사전문가는 중미관계에서 이전 쏘련과 서방사이의 랭전과 류사한 대립의 기운이 서서히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고 평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가 복잡해지고있는것은 명백히 미국때문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 새로운 랭전구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그러쥐려 하고있다. 여기에는 이 지역을 장악하여야 전세계를 지배할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이 보다 큰 위험성을 띠고 강화되였다.

며칠전 조선서해에서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호국》이라는 명칭을 단 북침전쟁연습을 벌려놓은 미제는 괴뢰들을 부추겨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보복타격을 가하였다. 이번에 우리 군대는 실지행동으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과 의지를 적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번 포격전사건을 턱대고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까지 끌어들여 지난 28일부터 남조선괴뢰들과 또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이와 함께 미제는 추종세력들을 발동하여 무턱대고 우리 공화국을 모해중상하고 국제적압박을 가하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미제의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책동이다.

우리 공화국외무성은 심각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한 대변인담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지금 초인간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있지만 정의의 수호자인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이라는것을 적들에게 엄숙히 경고하였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를 깊이 새기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그 누구의 허구적인 《위협》설을 퍼뜨리며 남조선호전광들을 꼬드기여 모략적인 방법으로 우리와의 군사적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군사적소동을 강화하여 정세를 극단적인 상황에로 몰아가 전쟁목적을 달성하려 하며 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지배권확립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이것은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의 중요한 총화이다.

리 경 수

ㄱ-01218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